비전개발 7주차

21600685 조예성

주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순절의 기간처럼 주께서는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 우리 인간들의 믿음 약함을 아시고 직접 보이셔서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을 믿고 죽음 뒤에 있는 천국의 세상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세상의 영화에 머물러있지 않고 구분되어 진정한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해야 한다. 죽은 뒤에 모두가 부활의 육신을 입어 주께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 그 최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부활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우리의 절대적인 두려움과 불안, 절망과 모든 실패와 낙심을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성공으로 바꾸어 세상을 전적으로 이기시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셨다.

세상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지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한다. 우리 현대인들은 눈 앞에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기 바빠 큰 숲을 보지 못한다. 자신의 길을 열심히 달릴 줄은 알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 지를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성실이라는 덕망으로 포장하여 열심히 달리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생산성이 좋은 성실한 인재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자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성실과 생산성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것이 자신의 교만과 주님과 정반대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다 죽고 부활을 했을 시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지는 상상만으로 끔찍하다.

교수님께서 니콜라우스 형제의 고백을 강의 때 언급해주셨다. 그 기도가 지금 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모두 떨쳐버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없애주소서. 나의 지식과 관계와 노력과 모든 성과들이 주께로 가는 것이 방해된다면 이를 없애주소서. 쉽지 않은 기도이고 이렇게 글로 쓰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눈물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기여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그렇게 새롭게 부활할 날을 기리며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님, 저희 모두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저희 각자의 교만과 지식이 아니라 주께 엎드리고 순종케 하소서. 세상에서 저희의 향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부터 모두 주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속히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